

장백산천지

제 160 호

2010년 2월 12일

금요일

신운예술단이 기자회견에서 홍콩정부가 착오를 시정할 것을 요구



신운순회예술단 대표 6명이 2010년 1월 25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정부가 6명의 핵심제작기술자에 대한 공연비자 발급을 거부하여 어쩔 수 없이 홍콩공연이 취소된 경과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그들은, 홍콩정부는 마땅히 제때에 착오를 시정하고, 홍콩인들이 향유

하는 자유와 법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미국순회예술단단장 리유나(李维娜)(왼쪽 사진)는 지적하기를, 《사건은 간단한 비자문제가 아니며, 정치탄압에 관련되어있는데, 분명히 홍콩정부가 중공의 통제를 받아, 이번 공연을 파괴하였다.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홍콩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한 결정은 완전히 말이 서지 않음을 볼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일국양제>는 <50년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상 이렇지 않음을 볼수 있다.》

“신운을 보호하자”는 시위행진을 거행 홍콩정부가 중공에게 굴종함을 견책



지난 1월 31일, 홍콩파룬불법학회, 신당인텔레비전방송국, 대기원시보에서 연합하여 주최한 “신운을 보호하고 홍콩을 보호하자”는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무려 1천명 해내외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홍콩정부가 중공에게 굴종함을 견책하고 신운공연을 성원했다.

홍콩민주당 부주석 류혜경(劉慧卿)은 친히 광림하여 《홍콩정부는 중공에게 굴종하여 신운공연을 파괴하고 홍콩의 핵심적가치인 “자유, 인권, 법제”를 짓밟고 있다.》고 견책했다.

홍콩지련회 주석 사도화(司徒华)는 《이번

특별구정부에서 중공과 배합하여 신운공연을 제압하여 그들의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중공의 <일국양제>와 공동한 가치를 파괴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북경 독립기자 고유(高瑜)는 《신운공연에 대한 파괴는 700만 홍콩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었다. 우리는 <23조>를 제지한 것처럼 홍콩의 신문자유, 언론자유에 대한 침법을 제지시키자.》라고 호소했다.

조자양(趙紫陽)의 전 정치비서인 포동(鮑彤)은 표시하기를, 《아주 분명한 것은 중공이 통제하는 정치행동으로, 홍콩정부는 북경정부의 명령을 듣고 한 것이다. 도대체 <일국양제>인가 아니면 일국일제인가? 볼수 있다싶이 홍콩은 갈수록 대륙화로 되고, 갈수록 중공당국에 좌우지된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중공의 저애는 다만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운을 알게하고 갈망하게 하는 것으로, 신운을 도와 세계각지에서 이름을 날리게 하는 동시에 중국대륙으로 금의환향하게 도와준다.》

프랑스매체에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폭로



2009년 12월 3일, 파룬궁박해진상조사조에서는 프랑스국회에서 회의를 소집하여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죄행을 폭로했다. 프랑스국회의원, 프랑스 저명한 외과의사, 프랑스의학과학원원사, 국제특사조직, 세계사형반대대회조직 대표들이 회의에 출석했다. “피비린 기관적출”조사보고의 저자 데이비드·길고어(사진 오른쪽)、데이비드·매터스(사진 왼쪽)、프랑스국제텔레비전방송국 전 종문부 주임 오보장이 회의에서 연설했다. 국제적인 프랑스어 텔레비전방송국에서 특별보도를 하여 중공이 파룬궁학원들을 대량적으로 도살하고 파룬궁학원들의 생체에서 기관을 적출하여 고가로 팔아먹은 죄행을 폭로했다.

“피비린 기관적출”저자 인권상을 획득



2001년 1월 16일, 국제인권협회 스위스분회에서 2009년도 인권상을 캐나다 데이비드·길고어(왼쪽 사진)와 데이비드·매터스(오른쪽 사진)에게 수여했다.

매터스선생은 시상식에서 《중공은 파룬궁학원에 대한 박해를 조금도 경감하지 않았다. 조사한 결과 중공은 파룬궁을 박해한 후부터 2005년까지 4만 1천 5백례 기관의식은 파룬궁학원에서 온 것이다. 국제인권조직에서 우리와 합작하여 함께 중국에서 발생한 피비린 기관적출을 제지한데 대해 나는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독약주사 맞고 미쳐버린 파룬궁학원 류지매



류지매(劉志梅)는 청화대학화학공정계 97년급 학생이다. 2001년 3월에 파룬궁수련을 견지했다는 리유로 학교에서 제명당했다. 이후 북경시 악경들에게 랍치당하여 12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산동성녀자감옥에서 거의 매일 독약조사를 맞

아 정신의상에 걸려 혈소리를 하고 기억이 상실되었고 지금 목이 마르고 머리가 아프고 시각이 희미해지고 환각증상이 생겨났다.

윗사진은 사람만 보면 집구석에 숨겨버리는 류지매이다.



■ 2008년 올림픽전야, 화룡시팔가자림업국기와 공장 파룬궁학원 리연승(李延勝)(50세좌우)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로동교양 2년판결을 받고 지금 길림성 9대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1월 29일 오후, 연길시파룬궁학원 은봉금(殷鳳琴)은 연길시국보대대 악경들에게 랍치당할 때 자기집 5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의 남편 파룬궁학원 양복진(楊福晉)은 악경들의 박해를 받고 반신불수가 되였고 그의 딸 양려견(楊麗娟)은 할빈녀자계독소에서 박해를 받고 정신병에 걸렸으며 양려견의 남편 파룬궁학원 리광석(李光石)은 길림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연길시파룬궁학원 조학순(趙學順)은 장춘시흑취자로교소에 갇혀 20일동안 박해를 받고 지금 혈압이 높아 장춘사법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 지난 2월 2일, 연길시아침신문사 편집이며 파룬궁학원인 당의빈(唐仪彬)은 1년반로동교양 판결을 받고 지금 길림성 9대로교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김경일, 연길시공안국 국장 13843383300

허효봉, 연길시국보대대 대대장 13904438836

허광철, 연길시국보대대 교도원 04332991337